

발행처: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집필:꿈진집필위원단
[학교 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제248호
(2021.09.30.)

9월 평가원 주관 대수능 모의평가의 의미와 이해

1.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난 9월 1일에 시행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수능 체제가 개편된 이후 대
학수학능력시험과 시험범위가 동일한 모의평가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10
월 전국연합평가가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 제2외국어 영역까지 포함되는 마지막 모의평가
입니다. 또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 때와 달리 여름방학 이후 본인의 취약영역에 대한
대비 수준과 모의평가 이후 수시 전형에 지원한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
해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 결과 산출 전에 2022학년도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완료되기 때문에 성적표
배부 후에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여 자신이 취약영역이 극복 여부, 그리고 6월 모의
평가와 비교하여 늘어난 학습 범위에 대한 대응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남은 대학수학능
력시험까지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의 수는 지난 6월 모의평가,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했나요?

평가시기	재학생		졸업생(검정고시포함)	
	지원	응시	지원	응시
2021학년도 9월	409,287	323,295 (85,992▼)	78,060	66,351 (11,709▼)
2021학년도 수능	346,673	295,116 (44,542▼)	146,760	125,918 (28,842▼)
2022학년도 6월	415,794	342,630 (73,164▼)	67,105	57,188 (9,917▼)
2022학년도 9월	409,062	?	109,615	?

아직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응시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접수인원은 재학생은 6,732명 감소
하였고, 졸업생(검정고시 포함)은 42,51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6월 모의평가 자료에서와
같이 실제 응시인원은 지원 인원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재학생보다 졸업생의 응시 인원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능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3. 9월 모의평가 어땠나요? 영역별로 수능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가. 국어 영역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에서 지문의 소재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가 두루 출제 되었습니다. 4~9번 문항의 ‘독서’ 지문은 EBS 수능특강과 연계 출제 되었으며, 32~34번 문항의 ‘문학’ 지문도 EBS 수능특강과 연계 출제되었습니다. ‘독서’, ‘문학’ 의 경우 각 4개 지문, 17문항씩 출제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체감난도는 다소 낮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어 과목의 세부 영역별 학습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통영역

① 독서

수능 독서영역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제시된 정보들을 분류·분석해 추론하는 능력을 꾸준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영역 문항 풀이 시간으로 40분을 넘긴다면 풀지 못하는 문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남은 기간 시간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문구조에 따른 전개 방식, 유형별 문제 풀이 방식과 순서, 낯선 지문을 통해 시간 운용 능력 등에 대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② 문학

문학영역에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비중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현대시와 고전시가 영역에서 정확도와 시간 단축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 이해력과 유형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면 소용없을 수 있으니,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문학작품에 대한 단순 암기보다는 기본 분석 능력과 응용 능력 그리고 실전 대응 능력 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택영역

①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은 유형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반복되므로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빈출 유형에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 직독직해가 수월하므로 의도적으로 ‘빨리 읽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는 수능 당일 긴장감과 부담감으로 문제 풀이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큰 손실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언어와 매체

문법 개념만 잘 숙지한다면 속독과 발췌독을 이용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념 이해 및 숙지 후 수능, 모의평가들에 대한 기출문제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 연습을 통해 매체 영역에 익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나. 수학영역

2021학년도 3월 모의평가 표준점수 최고점은 미적분 157점, 확률과 통계 150점, 4월 모의평가의 경우 미적분 147점, 확률과 통계 142점 이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미적분 147점, 확률과 통계 143점 이었습니다. 모두 미적분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습니다. 아직 9월 모의평가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차이점수를 알 수 없지만,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를 고려하기 전에 공통영역(수학 I, 수학 II)에 대한 원점수 성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변별력은 선택과목이 아닌 공통영역에서 확보하려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수학 I 과 수학 II 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영역 : 수학 I, 수학 II

수학 I, 수학 II 모두 각 11문항씩 출제되었습니다. 공통영역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인 15번은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수열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수학 I 에서 총 11문제 중 수열에서만 4문항이 출제된 만큼 수열 단원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II 에서는 공통영역 단답형 최고난도 문항인 22번은 역시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연속성, 미분과 관련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다항함수 중 삼차함수의 계수, 미분 가능성, 연속성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선택영역

① 확률과 통계

배점은 낮으나 이항정리, 이항계수와 관련한 문항이 반드시 출제되고 있고,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조합과 관련한 문항이 고난도 문항에서 연속출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통계영역에서의 문항들은 배점에 비해 개념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로 출제되었습니다. ‘확률’ 부문인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 심화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② 미적분

급수(등비급수)를 활용한 도형 문항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넓이와 관련하여 sin법칙, cos법칙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함수의 미분과 관련하여 극값, 최대, 최소 등 수학 II 에서의 미적분에서 확장된 개념에 대한 심화학습이 필요합니다. 적분의 활용에서는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한 문항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단순히 공식으로 기억하기 보다는 기출문제를 통해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③ 기하

이차곡선의 경우 정의와 성질, 평면벡터의 내적의 성질 및 정의, 공간도형은 이면각과 정사영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난이도와 관계없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래프와 관련한 문항에 대해 지속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간도형의 경우 자신만의 시각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쉬운 문항부터 난도를 점진적으로 올려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다. 영어 영역

EBS연계문항은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연계되었습니다. 간접연계 비율은 50%이상을 유지하였습니다. 연계문항으로는 듣기평가에서 4번, 15번 문항이 있습니다. 4번 문항의 경우 EBS 수능특강 영어듣기 24강 4번문항과 그림, 내용이 일치하였고, 15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영어듣기 13강 2번 문항의 '이유'가 일치하였습니다. 독해 및 어법 문항에서는 25번, 41~42번 문항이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에서 도표 및 문장삽입 문항에서 연계되었습니다.

EBS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직접연계에서 소재 등이 유사한 간접연계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다소 높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1등급 비율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3월 모의평가 3.6% 선, 4월 모의평가 5.5% 선, 6월 모의평가역시 5% 선이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이 12.7%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달리 간접연계로 전환된 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등급 비율이 10%선에 형성되지 않으면 2022학년도 수사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인원이 대거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공개되는 9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수능까지의 영어영역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어영역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학습에 대한 노력이 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부터 EBS교재 연계비율이 50%내외로 낮아졌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전혀 새로운 문항이나 내용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끝까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듣기문제와 독해문제를 함께 푸는 것 보다는 듣기와 각 문항에 집중하여야 하며, 어휘의 경우 독해에서 쓰이는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지문을 해석할 때는 평소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4.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2022학년도 정시비중 확대에 의해 학교마다 정시 전형에 대비하여 수능성적 위주의 학습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별 정원을 충원여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평소 본인의 모의평가 성적의 평균, 최고, 최저를 감안하여 수시 전형에서 입시를 마무리하고 싶은 학생들은 선택과 집중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여러 다양한 새 문제집을 풀어보는 학생들도 많습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접해본 여러 문제집과 EBS, 모의평가 및 수능 기출문항을 통해 출제유형을 분석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본인이 학습한 여러 문항들과 개념 등을 '설명' 가능하다면,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여 수능까지 학습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출제방향(한국교육과정평가원)
- [e-대학저널] 09.05. 백두산 기사

[학교 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